



불화 속의 명장면 (3)

日 고베 다나카가 소장 '비로자나불도'

즐고 웃고 노래하는 표정의 화엄



일본 고베 다나카가(家)소장 비로자나불도(毘盧遮那佛圖)의 부분.

약 6년 전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서 "한국불화로 보이는 작품이 창고에서 발견됐다"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개인소장가가 기탁한 이 작품은 일본 가마쿠라시대 작품으로 분류돼 있고 고베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 촬영채비를 하고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참으로도 독특한 형식의 거족(세로1m96cm, 가로1m33cm) 불화였는데, 틀림없는 한국불화입니다. 화면 정중앙의 방형 구획 안에는 여래를 중심으로 한 군상이 있고, 이 구획 밖으

암시를 나타낸 귀중한 사례로 판명됩니다. 방형의 중심군 주변의 약 1만 구종 84열·행 95구에 달하는 작은 부처는, 녹색 광배에 붉은색 납의를 감아 돌렸는데, 보통 천불 삼천불 또는 만불 등 무수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즐겨 쓰는 소략한 형식으로 취하며 넓은 화면을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작품의 윗부분 약 40cm 폭은 보완 수리를 하였고, 주존불의 천개 및 보살 등 부분에 2·3차례 걸쳐 보채를 가한 흔적이 남아있어, 이 불화의 순탄치 않았던 역사

장난가가 가득 감돌아 조선 특유의 유머러스한 터치가 심분 발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와 조선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간취되는 이 불화는 일단 고려말기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 속의 비로자나와 무수한 부처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계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따깝게도 채색부분이 배접면과 분리되어 많이 떨어져 나갔고, 이러한 박락이 계속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로자나를 위시한 중심 성중 무리는, 두광 및 의습 윤곽선이 섬세한 금선묘로 처리되었고 또 인물의 배치에 있어 전후의 공간감과 합리적인 단축법이 지켜져 엄격한 고려의 회화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수많은 작은 부처들은, 웃는 부처·즐고 있는 부처·노래 부르는 듯 입을 쭉긋 모은 부처·고개가 기울어있는 부처 등 각각 그 표정이 다릅니다. 중국 및 일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량한 부처의 여는 묘사처럼, 천원일물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 표현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특히 얼굴표현에는

가지의 의미겠지요. <화엄경>이라는 경전 제목 자체가 비로자나의 '연화장세계'를 '장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숙지한다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계(삼천대천세계)'를 '무량한 부처'·'무한한 광명'·'불가사의한 진리'·'일체의 자비'로 가득 장엄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심오한 경전의 내용을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무량천만억'·'일체시방세계'·'아승지겁'·'항하사' 등 '무한'을 표현하는 다양한 활용사적 문

전체의 한 화폭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 일즉다 다즉일(一即多多即一)의 원리·부분은 전체이고 또 전체는 부분이라는 연기사상·상호공존의 법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회적 개인인 사회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 사회적 정치 경제구조는 개인의 인격마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일그러진 사회는 일그러진 개인을, 일그러진 개인은 일그러진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겠지요. 상대가 있기에 내가

생생한 표현력과 조선 특유의 유머스런 터치 심분 발휘 '일즉다 다즉일' 원리·연기사상·상호공존 법칙 화폭에 담아



그림 1



구의 끊임없는 나열에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마치 <화엄경>의 원융무애의 세계관은 '무한'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유한'에의 거부, 그리고 보니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이 유한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유한이라는 각박한 생각 속에서 경쟁과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와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무한하게 풍요롭다는 생각을 가질 때야 비로소 스스로도 풍요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주에 가득한 무한한 법성'을 가지 화려한 노력은, 일찍이 6세기의 중국 왕강석굴 18동의 거대한 불상에서 확인됩니다. 노사나불이 걸치고 있는 법의에는 무수한 화상불이 가득 조각되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당초제사의 노사나불좌상의 이중광배에는 일천 화불이 뒤덮고 있어, 화엄미술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유한적 표현으로 무한을 조형화하려는 대담한 도전은 불교미술사상에서 계속되었는데, 특히 한국 고려시대에는 본 작품에서와 같이 이러한 형식의 불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작은 부처 하나 하나가 모여



그림 2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이며 대양의 일부이니/ 조그만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가도/ 유럽은 그만쯤 작아지고/ 모래가 그렇게 되어도 마친가지도/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어도 마친가지도/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지나/ 그 이유는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 강소연(일향한국미술연구원 연구원)

그림1-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만 무량한 부처, 그림2-법계에 가득한 무량한 부처, 그림3-유머러스한 표현의 작은 여래.

비로자나·석가모니는 '불이동체' 암시하는 귀중한 사례 고려회화 특징인 섬세한 금선묘 합리적 단축법 등 지켜져

로는 참으로 무수하게 많은 작은 부처님 좌상이 깨달 같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심 여래의 육계주에서는 광명의 빛줄기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가고 있고 지권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어, 이 주존이 모든 부처의 근본불인 비로자나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로자나와 그 협시를 포함한 성중의 둘레에는 상서로운 기(氣)의 구름이 물신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협시군중의 구성을 살펴보니 비로자나를 좌우로 먼저 문수와 보현보살·그 외 6대 보살·사현왕·심대제자·팔부중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흥미한 영산회상도의 석가모니를 보좌하는 협시군중과 같은 구성 요소입니다. 본 작품은 비로자나와 석가모니는 결국 불이(不二) 동체라는 도상학적

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따깝게도 채색부분이 배접면과 분리되어 많이 떨어져 나갔고, 이러한 박락이 계속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로자나를 위시한 중심 성중 무리는, 두광 및 의습 윤곽선이 섬세한 금선묘로 처리되었고 또 인물의 배치에 있어 전후의 공간감과 합리적인 단축법이 지켜져 엄격한 고려의 회화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수많은 작은 부처들은, 웃는 부처·즐고 있는 부처·노래 부르는 듯 입을 쭉긋 모은 부처·고개가 기울어있는 부처 등 각각 그 표정이 다릅니다. 중국 및 일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량한 부처의 여는 묘사처럼, 천원일물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 표현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특히 얼굴표현에는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소서

☎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우체국 010041-01-012219 (주)현대불교신문사

공단등 23cm(大) / 18cm(中) / 15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 : 1BOX 20개입 / 8cm : 1BOX 16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만일등 32cm x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형상소통
고급본염인쇄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동산불교대학(2년)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장례지도사 양성

1. 개설취지
장례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례,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례는 단순히 사후처리가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 교과목

과 정	과 목
1년	· 장례학개론 · 법의학 · 상장례민속학/역사 · 장묘관련법규 · 종교와 불교 · 장차법위주 · 실습 · 실습
2년	· 공중보건학 · 시신위생처리및 권리학 · 장례식장경영론 · 현행장묘제도의제반적고찰 · 환경과 풍수지리 · 불교장도학 · 실습 · 실습

3. 개강일시
2006년 3월 7일(화) 오후 7시
※ 특전: 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동산불교대학원(3년) 범본 금강경 대강좌

초기 대승경전의 산스크리트본 원전강독

1. 개설취지
초기 대승경전중 반야부의 핵심인 반야심경, 금강경을 산스크리트원전 해석을 통하여 대승사상의 새로운 이해와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사회적 구원의 실천을 불교지도자로서 경전강독과정입니다.

2. 교과목

과 정	과 목	교 수
근본 불교학과 (목)	금강경(1), 금강경(II)	최봉수교수
불교학과 (월, 화)	화엄경(2) 유식삼십승(2)	활안스님 표주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후 4시
※ 특전: 3년과정 수료후 전법사 수여